

~主内平安~

비 오는 피지 수바에서 눈 오는 한국에 계신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이곳은 여름철에 접어들어 평균 기온이 32도까지 올랐습니다. 더위를 피해 이안이는 거의 매일 물에 잠겨 지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잠자는 시간에는 에어컨이 있어 편안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의 시작인 1월, 엘림중국인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 엘림중국인교회 3가지 시작

- 성경 일독.

12월 리더 모임에 리더들에게 성경 일독을 시도해 보자는 제안에, 처음에는 많은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기도한 후,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지요. 매일 읽을 분량을 교회 채팅방에 올리고, 성도들도 매일 읽은 분량을 공유합니다. 또한 서로 격려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 교회 뒷벽에 붙였고, 교회에 오면 형광펜으로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많아야 5명 정도가 참여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15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두 명 있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서 힘을 얻는 고백을 나누는 등 믿음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명의 삶>

신앙의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어 <생명의 삶>을 꼭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바로 시작하면 부담스러울까 봐 잠시 기다렸습니다. 한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생명의 삶>을 먼저 시작하기로 했지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모여 약 두 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명이 참석했고 3번 수업을 마쳤습니다. 일부 성도는 퇴근 후 바로 와서 밥을 못 먹고 오는 경우가 있어,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간단하게 죽을 먹고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의 녹음 파일을 듣고 중국인의 문화에 맞게 중국어로 번역하며, 교재와 과제, PPT도 모두 중국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 이안이가 있고 컴퓨터가 거실에 있어서 낮에는 이안이가 궁금해 자주 오는 관계로, 모든 준비 작업은 주로 이안이 낮잠 시간과 밤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숙제, 성구 암송, 성경 요약, 삼겹줄 기도 등은 한국에서 하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번 수업을 진행해 보니, 한 번에 2과씩 진행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성도 수가 많지 않은 엘림중국인교회에서는 한 과씩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두 과를 줄여 진행할지 고민하던 중, 이정우 목사님께 조언을 구해 현재는 한 과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참여하고 싶어 하는 성도도 있지만, 사는 지역이 멀어 늦은 저녁엔 귀가가 길이 위험하여 다음에 낮 반이 생기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성도들이 피곤해 보일 때도 있지만, 열심히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기쁨과 위로가 많이 됩니다. <생명의 삶> 시간을 통해 단순한 종교심이 아니라, 조금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 토요일 목장 모임+ 작은 기도회

엘림중국인교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토요일 저녁에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나눈 후 돌아가면서 한 번씩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기도가 비슷하고 시간이 길어 진다는 의견이 있어,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목장 순서대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석하는 성도 대부분이 50대여서 그런지 자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Olive Blessing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나눔의 습관이 충분하지 않아, 주제와 다르게 이야기가 흘러갈 때가 많아 중간에 한 번씩 흐름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는 목장 시간 동안 삶 나눔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기도 시간이 짧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논의한 끝에 목장 시간을 일찍 시작하고, 목장 끝에 교회 기도 제목(주일, 미 세례자, 전도 대상, 환우 등)을 나누며 돌아가면서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추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장 보는 일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몇몇 자매님이 일찍 와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기에 통성기도가 어려운 성도도 있었지만, 훈련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에 모두 순종하며 시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토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떠나는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며 저희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앞으로

토요 시간을 통해 성도들이 서로 더 알고,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 기타

1월부터 주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린터가 없어 채팅방에만 올렸지만, 삶공부 교재와 숙제도 출력해야 해서 교회에서 작은 프린터를 구입하여 편리하게 출력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글 지도에 교회 이름과 위치를 등록하여, 그동안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던 엘림교회를 이제는 지도를 보고 찾아올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Facebook 계정도 교회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제대로 운영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엘림중국인교회를 찾아오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2. 저희 가정

- 쥐 잡기 이야기

이곳에 온 지 두 달이 되니 저희도 피지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특히 그동안 우리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쥐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쥐약, 쥐 끈끈이, 쥐덫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는데, 한 형제님의 경험담을 듣고 그 방법대로 하자마자 바로 잡혔습니다. 얼마나 큰 성취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진드기 이야기

진드기 문제도 점점 심해져, 현관문 옆 계단에서 하루에 10마리 이상을 잡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집 안 방충망과 소파까지 진드기가 나타났고, 아내가 우연

히 계단을 살펴보던 중 쌓여 있던 개털 사이에 진드기 새끼들이 까맣게 몰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은 Lucy 자매님이 현지인을 고용해 풀을 자르고 약을 뿌리는 일을 맡아 주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Lucy 자매님께 약을 받아 약통 사용법을 알아본 후, 아내가 직접 약을 만들어 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비율이 조금 맞지 않았지만, 다음 날 진드기들이 모두 죽은 것을 보니 얼마나 다행인지.... 이제는 우리가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진드기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매일 집 안팎을 돌아다니는 이안이가 물리지 않은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사고 이야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헐거워진 현관문 방충망을 다시 고정하기 위해 의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녹이 슨 의자 다리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제가 민망하게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눈썹 쪽에 약 2cm 정도 상처가 났지만, 이안의 연고를 발라 바로 지혈이 되어 감사합니다. 입술도 다치고 잇몸에서도 며칠 동안 피가 계속 났습니다. 외출이 불편해 바로 치과에 가지는 못했지만, 지난주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피지에서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는 한국인 치과가 있다는 사실이, 그분이 선교사처럼 느껴질 만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안과 함께 밖에서 빨래를 넣고 있는데, 이안이 갑자기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금장치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문을 열 줄 몰라 모두 당황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비상 키가 없었고, 비용이 꽤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급히 잠금장치를 여는 사람을 불렀으나 한참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안은 점점 더 불안해했고, 결국 망치로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에 잠금장치가 없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인터넷으로 방법을 찾아 화장실 문에 있던 잠금장치를 현관문에 설치했습니다. 큰 사고 없이 이안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병 이야기

아내는 일주일 전부터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가려움이 심해 며칠 동안 많이 고생했습니다. 약국에서 산 안약은 효과가 없었지요. 마침, 중국에 다녀온 성도가 중국에서 암약을 사다 줘서 사용했고, 많이 회복되어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 부부가 동시에 열이 나고 속이 아프며 심한 설사를 했습니다. 저는 설사가 더 심했고, 아내는 복통이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약만 먹으면 금방 좋아질거로 생각했지만 이전과 달리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안을 재운 후 약국에 가서 약을 사 왔지만, 열만 조금 내렸을 뿐 다른 증상에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주말이라 중국인 병원도 문을 닫았고, 토요일 목장 모임과 주일 성찬식 예배를 앞두고 있어 마음이 많이 급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배 시간 동안 설사가 멈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힘이 없는 상태로 설교를 마쳤지만,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현재는 조금 나아진 상태이지만, 중국인 병원을 예약해 진료받기로 했습니다. 저와 아내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안이 함께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ucy 자매님이 없는 한 달

1월에 집주인인 Lucy 자매님이 따님과 함께 호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소 저희 장보기를 많이 도와주시던 Lucy 자매님이 안 계셔서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차를 저희에게 맡겨 주셔서, 가까운 마트에 가서 간단히 장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운전 방향이 한국과 달라 10분 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해야 했지만,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중에 공부하러 오는 성도님에게 가끔 채소를 사다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Lucy 자매님이 안 계신 동안 다른 리더들이 교회 청소와 요리, 뒷정리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미 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2. 성경 1독 완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15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읽는 속도가 빠른 성도도 있고 느린 성도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성경 1독을 완주하며, 읽는 과정에서 은혜와 깨달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3.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의 자녀로 어린 아이들이 약 4명, 청년들도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유치부와 청소년부도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과 청년들을 그들의 시선에 맞게 영적으로 돌보고, 적절한 기회를 따라 지혜를 주시어 때에 따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대하며 기도해 주세요.

4. 저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몇 차례 아프면서 피지에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매일 하루 3km씩 달렸는데, 여기 와서는 거의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육아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피지 수바에서
최에녹, 진실라, 이안 드림

후원 계좌: 부산은행 101 2035 6666 02

장산교회 선교부

기도 제목

1. <생명의 삶> 수강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생명의 삶>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엘림중국인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총 23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교회에서는 한 번에 두 과씩 진행했지만, 지금은 한 과씩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잘 참석하고, 수업마다 지루하지 않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 가고, 삶 가운데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업을 준비할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흥미롭고 의

부록사진

- 주일 예배 모습



- 매일 물놀이 하는 이안이



- Lucy자매님이 자비로 성도들을 초대한 새해 감사 모임



- 햅빛 좋은 날 이불 말리기

